

전시제목 Ⅵ 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 강홍구 개인전

전시기간 Ⅵ 2009년 3월 13일 - 5월 3일

전시장소 Ⅵ 몽인아트센터

전시개막 Ⅵ 3월 13일 (금) 오후 6시

전시구성 Ⅵ 은평 뉴타운 개발 과정을 디지털 카메라로 포착하고 합성하여 재구성한 사진
20여 점, 슬라이드 쇼로 구성된 은평 뉴타운 연대기 및 지도 작업



“사진이란 결국 대상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다.

은평 뉴타운을 통해 우리, 우리의 욕망을.”

—작가노트 중에서

강홍구, <살구나무>, 2009

Digital photo print, 107x125cm

작가 강홍구의 개인전 <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이 2009년 3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몽인아트센터에서 마련된다.

2001년 새로 이사한 동네를 산보하듯 둘러보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진 작업들은 작가 강홍구의 의지와는 별개로 어떤 우연한 마주침들의 기록으로 발전되었고, 마침내 <사라지다: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이라는 전시의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작가 자신의 일상을 이루는 주변지역을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가볍게 관망하던 그의 ‘기록 아닌 기록’ 작업은 2002년 발표된 ‘뉴타운 시범사업 선정 계획’으로 인해 새로운 맥락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강홍구의 작업은 도시화의 필연적 과정, 혹은 개발열풍에 대한 다큐멘터리적 기록에 집중하여 현실의 모순에 대한 작가 자신의 입장을 맥락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느 순간 작가 개인의 일상에 개입해버린 폭력적 풍경을 바라보며 사라져가는 것들, 혹은 이제는 사라진 것들에 대한 기억과 향수를 따라가는 형식을 취한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걷는’ 속도로 찍힌 풍경을 ‘걷는’ 속도로 바라보며 읽어내는 과정에서 관람객은 의도하지 않았던 또 다른 현실의 기록 속에서 자신이 위치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작가 소개

1956년 전라남도 신안에서 출생한 강홍구는 목포교육대학(1976), 홍익대학교 서양화과(1988) 및 동대학원(1990)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1992년 갤러리 사각(서울)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위치, 속물, 가짜>(금호미술관, 서

을; 갤러리 그림시, 수원, 1999), <한강시민공원>(요스카 뷰잉룸, 도쿄, 2002), <드라마 세트>(대안공간 풀, 서울, 2003), <오쇠리 풍경>(갤러리 숲, 서울, 2004), <풍경과 놀다>(로댕갤러리, 서울, 2006), <어의도 가는 길>(프로젝트 스페이스 칸다다, 도쿄, 일본, 2006) 등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고, <Emotional Factor+ y>(영은미술관, 광주, 경기도, 2008), <Daily Life in Korea: 한국 태국 수교 50주년 기념전>(퀸즈 갤러리, 방콕, 태국, 2008),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8>(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8), <나침반의 끝>(멕시코 시티, 멕시코; 하바나, 쿠바, 2008), <번역에 저항한다>(토탈미술관, 서울, 2007) 등 단체전과 광주비엔날레(2000, 2002), 부산비엔날레(2002), 미디어시티서울(2002) 등의 국제적 미술행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작업을 선보여왔다.

2006년에 “올해의 예술가상(시각부문, 문예진흥위원회)”을, 2008년에 “동강 사진예술상(동강 사진 위원회)”을 수상했다.

안내 및 문의

몽인아트센터 큐레이터 최지예

T. 02 736 1446~8/ F. 02 736 1449/ E. monginartcenter@gmail.com/ www.mongin.org

※ 고해상도 이미지는 <http://www.webhard.co.kr> (id: miart/ pw: 1449) [내리기전용]→[강홍구 개인전 프리뷰] 폴더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